

‘물폭탄’ 안동·영양, 추가 피해 잡는다

주말 동안 경북북부에 집중호우 토사 유출·낙석 등 피해 잇따라 129가구 197명 사전대피 실시
추 도지사, 긴급 상황 점검 돌입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대응” 강조 재대본·소방 등 행정력 총동원



8일 경북도소방본부 구조대원들이 폭우에 토사가 흘러내린 안동시 예안면 도로에서 현장을 살피고 있다.

8일 경북 북부지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북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경북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대피 현황을 보면 129가구 197명이 대피했다. 안동시와 영양군 등지에서는 집중호우로 도로가 통제됐으며 도내 곳곳에서 토사 유출과 낙석, 나무 쓰러짐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철우 도지사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된 도내 집중 호우에 대비해 8일 아침 7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8일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긴급 상황 점검을 했다. 오후에는 안동시 임동면 예안면과 대곡리 등 비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한편 8일 오후 안동시 임동면 위리와

대곡리 마을주민 19명이 고립됐다가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되거나 자력으로 대피했다. 안동시 예안면 도로에는 낙석이 발생해 도로 일부가 통제되기도 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전 5시 기준으로 상주, 예천, 안동, 의성, 영양, 영덕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 문경, 정선, 울진, 북동산지에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도내 여러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경북도는 집중호우로 비상단계 발령과 함께 마을순찰대를 적극 가동하고 산사태 예측정보에 따른 주민 대피조치를 진행했으며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129세대 197명의 사전 대피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경북소방본부도 비 피해 관련해 이날 오후까지 모두 224대의 소방차와 인력 700여명을 동원, 13건 30명의 인명을 구조했으며 144건의 주택 침수와 토사낙석 등의 피해를 집계

고 피해예방에 나섰다.

도는 앞으로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하고 SMS, 자동 음성통보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지속해서 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도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얼어붙은 호우와 폭염과 같은 다양한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폭염 걱정 끝... 쿨산업 신기술 총집합

10·11일 대구 엑스코서 특화전시 기후·산업재·자원순환 등 분야 77개 기업·기관서 200부스 운영
사전등록 하면 모든 행사 무료

국내 77개 사의 쿨산업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해 총 200부스가 운영되는 이번 박람회는 폭염·기후, 산업재, 자원순환, 소비자, 정책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해 소개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폭염과 기후·환경 변화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폭염 관련 신기술과 제품 등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2024 대한민국 국제 쿨산업전’을 10일, 11일 엑스코에서 개최한다.

대구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5번째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 쿨산업전’을 폭염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전문가, 기업, 공무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구의 대표 행사로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첫 폭염주의보도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6월 10일에 발령(2023년의 경우 6월 17일)되는 등 폭염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무더위, 미세먼지 발생 등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쿨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제 쿨산업전’은 대구시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안전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쿨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마련한 전국 유일의 산업 전문 박람회로 행정안전부, 환경부, 조달청, 대구지방기상청, 대구정책연구원 등 후원으로 엑스코에서 열린다.

△쿨링포그, 미세먼지정화시스템 등 폭염·기후 분야 △친환경 자재, 차열페인트 등 산업재 분야 △태양광발전, 폐기물 열분해시스템 등 자원순환 분야 △쿨패션, 업사이클링 제품 등 소비자 분야 △정책사업 및 R&D사업 등 정책홍보 분야로 나뉜다.

특히 올해는 30여개의 대기업 바이어 중심으로 구매상담회를 개최하고 해외 바이어(인도, 파키스탄, 라오스 등)도 참가함으로써 중소기업 규모의 전시참가업체들이 판로 개척과 수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첫날 쿨산업·관·학·연이 한자리에 모이는 ‘쿨산업 진흥 콘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며 또한 ‘전국 재난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해 지자체 간 폭염 대응방안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다음날 대한건축사협회 경북도건축사회가 주최하는 2024년도 건축사 실무교육이 개최돼 건축사 회원 250여명이 국제쿨산업전 행사 현장을 방문할 예정으로 관련분야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쿨산업전 누리집에서 사전등록을 하거나 당일 현장 등록을 하면 모든 행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강두용 기자hwondrumkakao@daum.net

경일대·구미대, 경북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요람 ‘우뚛’

교육부 부트캠프 지원 공모 선정 5년간 국비 70억 각각 지원 받아 반도체 기업 맞춤형 현장인력 공급

교육부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이 기업과 공동으로 취업 희망자(대학생)를 대상으로 현장성 높은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취업까지 연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반도체 분야에서 18개 학교를 선정하고 오는 2029년까지(5년(3+2)) 대학별 연간 평균 15억원 규모로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경북도에서는 △경일대학교와 △구미대학교가 공모에 선정돼 5년간 국비를 70억원씩 지원받는다.

경일대학교(21개 사 참여)와 구미대학교(15개 사 참여)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공동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 및 참여 학생의 전공 능력을 고려한(초급, 중급, 고급)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부트캠프에 참여한 반도체기업과의 채용약정을 통해 졸업생들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포스텍 반도체특성화대학원, 금오공대·영남대 반도체특성화대학 선정에 이어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도내 반도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에서 현장 인력까지 다양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은 “국내 반도체 산업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이 많이 배출돼 지역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축기연, 스마트 축산기술 실증·보급 ‘속도’

서울대와 상호 양해각서 체결

경북도축산기술연구소(이하 축기연)는 지난 5일 서울대학교와 스마트 축산 기술의 실증 및 보급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우의 생산성향상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체정보 수집장치’ 개발을 기획하고 있다.

이 장치는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한우 발정탐지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정확도를 향상하는 장치로 발정과 분만 시기를 보다 정확히 예측해 한우 번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의 체온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도록 돕는 장치다.

서울대의 스마트 장비 기술력과 축기연의 연구력이 융합돼 한우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한우 농가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환 연구소장은 “첨단 공학기술과 축산기술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시너지가 창출될 것을 기대하며 스마트축산 기술의 실증과 보급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두 기관은 축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고품질·고효율·고생산성 농촌지역의 노동력 절감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한 협력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제26회 봉화은어축제

2024. 7. 27. SAT - 8. 4. SUN 9일간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 일원

주최/주관 봉화축제관광재단
후원 경상북도 봉화군



‘오직 시민’ 문경시의회, 하반기 힘찬 첫발 의장단 출범 기념식 가져... 시민 행복 위한 의정활동 다짐

문경시의회는 지난 4일 전체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하반기 의장단 출범 기념식을 가졌다. 이정걸 의장은 “어렵고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된 마음으로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주민의 봉사자적 입장에 서서 상호 협조와 조화를 이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2년 7월 1일 제9대

문경시의회가 개원할 때 그 마음가짐 그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문경시의회는 지난 1일 제277회 임시회에서 의장 이정걸 의원, 부의장 진후진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신성호 의원, 총무위원장 남기호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박춘남 의원을 선출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지위보다는 할 일에, 권한보다는 책임에”

경산시의회 하반기 개원식
경산시의회는 5일 분회의장에서 제9대 시의회 하반기 개원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개원식에는 조현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개원사,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안문길 의장은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에게 감사드리며 전반기 의장단이 보여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발판 삼아 후반기에도

집행부와 상호 존중하며 28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지위보다는 할 일에, 권한보다는 책임에 더 집중하며 말이 아닌 실천과 결과로 증명하는 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총혼담을 찾아 문화·잠배를 통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오로지 경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안동에 쏟아진 ‘雨’ 의회, 임시회 연기 수해복구 집중·10일 상임위 선거

안동시의회는 밤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일정 등을 감안해 당초 예정됐던 8일 제25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비 피해로 본회의 일정이 미뤄진 만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10일 오후 3시로 미뤄 처리할 계획이다. 김경도 의장은 “본회의 일정에 앞서 수해 복구 작업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며 “시의원 전원이 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오영수 기자oms7227@nate.com

열린 소통으로 ‘모범되는 의회상’ 구축하겠다

도의회 의회운영위 원구성 완료
후반기 의장 ‘이춘우 의원’ 선출
상반기 경제위원장에 이어 선임
탁월한 리더십과 재선의 힘 입증
부위원장 최병근 등 총 15명 임명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5일 제348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하반기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제12대 하반기 경북도의회 의회운영 위원장에는 이춘우 의원이, 부위원장은 최병근 의원이 각각 선임됐고 위원에는 김일수 의원, 김진업 의원, 도기욱 의원, 박용선 의원, 박창욱 의원, 손희권 의원, 연구식 의원, 윤철남 의원, 이형식 의원, 임병하 의원, 정경민 의원, 조용진 의원, 차주식 의원 등 모두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춘우 의원은 영천시의회 3선 의원을 거친 재선 도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부의장,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12대 전반기 기획경제 위원장에 이어 이번 12대 하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되는 전례가 없던

인사에 이 의원이 가진 위원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경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등 활발한 입법활동도 펼쳤으며 ‘경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한국유권자중앙회 정명의정대상’, ‘국제자원봉사총연합회 봉사대상’,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 ‘출입기자단이 뽑은 베스트 도의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

이춘우 위원장은 “도의회 전반기에 이루는 운영위원회를 이끌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 모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신 만큼 항상 열린 자세로 협의하고 소통해 하반기 경북도의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병근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농수산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이번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최 부위원장은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지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제13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 ‘경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경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최병근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됐고 지방의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성도 강조되고 있어 운영위원들과 함께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지방의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제3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을 선임해 하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지학 상생으로 ‘도민에 신뢰 주는 교육 복지’ 실현 앞장

도의회 교육위 구성원 선출 완료
위원장 박채아·부위원장 조용진
다양한 식견 살려 현장 중심 의정
도민과 함께하는 위원회 조성 ‘힘’



박채아 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

경북도의회는 지난 5일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하반기 7개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산 출신 박채아 의원이 하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이어진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김천 출신 조용진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하반기 교육위원장을 맡게 된 박채아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제11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거쳐 제12대 교육위원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각 분야의 다

양한 경험과 식견을 살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활발한 입법 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전개로 도민의 교육 및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제10회 우수의정대상 우수 의정상’, ‘2023 베스트(BEST) 도의원상’,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우

리 교육위원회는 최우선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과 사회·학교가 상생하고 도민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부위원장을 맡게 된 조용진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제12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며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경북도교육청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경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지방자치 의정 부문)’ 수상,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의원은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교육위원회, 도민에게 신뢰를 주는 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교육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하반기 교육위원회는 박채아 위원장과 조용진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김대일 의원, 김희수 의원, 박승직 의원, 박용선 의원, 윤종호 의원, 임병하 의원, 정한석 의원, 차주식 의원, 황두영 의원이 하반기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상투데이 캠페인

저출산 극복

경북형 새날봄

<p>조기퇴근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MOU) 근로자 임금 보전 각종 지원사업 우대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 	<p>학교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최초 교육청·도협업모델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AI 기반 돌봄 순환버스 운영 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p>심야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 서비스 24시 어린이집 아픈 아이 긴급 돌봄 24시 응급치치 편의점
--	---	---

▶ 온종일 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 ◀

저출산 극복에 경주시 골프협회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경북 복숭아 '홍백·금황' 소비자 입맛 저격!

농가 보급 확대 위한 현장평가회
과실 크기·당도·향 우수해 '호평'



경북도농업기술원은 8일 경산시 진량읍 농가 현장에서 청도복숭아연구소가 육성한 고품질 대과형 프리미엄 복숭아 '홍백', '금황'의 농가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복숭아 연구회, 농업인, 종묘 생산업체, 유관기관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백'과 '금황'의 재배 특성과 과실품질을 평가하고 전시·시식회를 가졌으며 두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의 재배 기술을 공유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복숭아 '홍백'은 지난 2018년 품종보호 등록 품종으로 현재 80ha 정도 재배되고 있으며 성숙기는 이달 상·중순인 조생종 백도계 품종으로 과중 300g, 당도 13브릭스 이상의 과실 외형과 품질이 우수하다.

복숭아 '금황'은 황도계 품종으로 지난 2015년 품종보호등록됐고 현재 88ha 정도 재배되며 성숙기는 7월 상·중순에 과중 300g, 당도 13브릭스 이상으로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은 특성이 있다. 두 품종 모두 과실 크기가 큰 대과형으로 맛과 향이 우수해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홍콩, 두바이 등 해외 소비자 평가에서도 큰 호평을 받아 수출 유망 품종으로 기대되는 품종이다.

청도복숭아연구소는 지금까지 17품종을 개발했으며 품종등록이 완료된 11품종은 통상실시를 통해 농가에 보급(1261ha, 전국 재배면적의 6.3%)하는 한편 수출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홍백'과 '금황'을 홍콩, 싱가포르, UAE(두바이, 아부다비)에 선보여 소비자와 유통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영숙 원장은 "복숭아는 경북이 전국 재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과수 작물"이라며 "앞으로도 신품종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한 품종을 조기에 확대 보급함으로써 경북 복숭아 산업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북도민 누구나 배움 즐거움 누릴 수 있게”

도, 평생교육지도자협 콘퍼런스
역량 강화·네트워크 활성화 다짐
유공자 표창·우수 활동 사례 공유



경북도는 지난 5일 포항시 라메르웨딩컨벤션에서 경북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주관으로 기관·단체장 및 시·군 평생교육지도자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북도 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 평생교육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평생교육 콘퍼런스는 지역 현장에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평생교육지도자의 역량 강화와 시·군 간 교류로 네트워크 강화에 효과적인 평생학습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변화의 시작! 경북도 평생교육, 평생교육지도자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평생교육 부스 운영과 다양한 공연, 시상식, 활동 사례 발표, 특강 등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평생학습 동아리 '여섯줄 기타' 동아리와 '영일대 불빛문화화산단'의 축하 공연을 관람하고 시·군이 설치한 평생교육 부스를 둘러보면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상식에서는 평생교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있는 마을 평생교육 유공자 19명에게 도지사 표창(6명)과 도 교육감상(6명), 도의회 의장상(5명),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2명)을 수여했다.

마을 평생교육 활동 사례 발표에 나선 상주시협의회는 찾아가는 동경대학, 장애인 주산 학습 등에 관한 교육사업의 성과와 노하우를 소개하고 포

항시는 공동체 중심의 활동 사례 중 술련수업과 다양한 체험 수업 등을 소개했다. 또 임성일 가톨릭상지대 교수는 특강에서 소통 리더십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삶과 화법,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연했다.

한편 경북도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지난 2010년 1월 12일 창설했으며 양성 과정을 통해 연간 400여명의 평생교육지도자를 배출, 도내 22개 시·군의 3288명 회원이 중심이 돼 봉사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수 도 대학정책과장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지 않으려면 평생 배움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와 활동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북 中企 인증브랜드 '실라리안' 신규 모집

22일까지 접수... 5개 사 선정
온오프라인·해외 진출 지원

경북도는 8일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보유에도 불구하고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인증브랜드 '실라리안'의 신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신규기업 신청·접수 기간은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이며 선정 규모는 5개 사 정도로 자격요건 및 정량평가, 현장평가, 정성평가를 거쳐 11월 중 운영위원회의 종합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경북도 소재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최근 2년간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의 소비재(완제품) B2C 품목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전업률 50% 이상을 충족한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실라리안 브랜드 로고 사용, TV·라디오 광고, 온라인 홍보 및 판로개척, 오프라인 특판전, 해

외시장 진출 지원, 공유오피스 사무공간·라이브커머스 장소 제공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북도 정책자금인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자보전) 융자 한도 우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실라리안은 경북도가 지난 1997년도 처음 브랜드를 개발해 1999년 10개 기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총 60개 사가 참여 중이며 참여기업의 총매출액은 2018년 2000억원대 첫 돌파 후 지속 증가해 2023년 기준 2200억원대로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경북도 대표 인증브랜드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도정소식-경북소식-고시공고 또는 (재)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epa.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경제진흥원 마케팅팀(054-470-8574, 053-243-8581)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교육청, AI 디지털 교과서 대비 디지털 인프라 개선 나선다

내년 도입, 활용 수업 준비 만전
연말까지 총사업비 102억원 투입
디바이스 보급 관리·인력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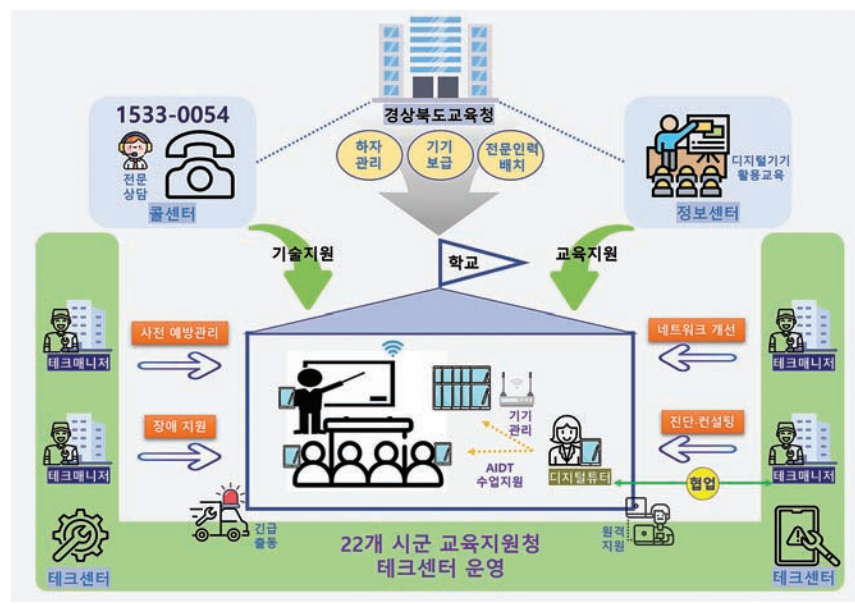
경북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사업비 102억원(교육부 특별교부금 64억원, 자체 예산 38억원)을 투입해 22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교 디지털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대전환기에 걸맞은 디지털 인프라의 질적·양적 개선과 함께 22개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를 밀착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초·중등학교 디지털 인프라 개선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계획의 3대 핵심과제는 △사용자 중심의 디바이스 보급 관리 개선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 인력 지원 등이다.

'사용자 중심의 디바이스 보급 관리



개선' 분야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대비한 디바이스 운영을 지원하고 전 주기적 디바이스 관리체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학교에 기본급한 디바이스의 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디바이스 전주기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과 디바이스 상설 교육장 구축, 디바이스 관리 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매체 과노출 예방, 유해 정보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안전한 기기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해 향후 2년에 걸쳐 학교 전 구간의 통신속도를 측정하고

분석해 네트워크 환경을 개선한다.

학교 네트워크 개선의 경우 올해 564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대규모 학교 64교에 대해서는 초고속 10G 망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 인력 지원' 분야는 22개 교육지원청에 테크센터 설치와 함께 테크매니저 25명을 배치해 AIDT 수업을 보조하고 학교 인프라 관리를 지원하는 디지털튜터 93명을 우선 배치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학부모님과 학교 현장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학생은 즐겁고, 교사는 가볍고, 학교는 새롭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오는 9월 1일자로 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인프라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교육담당과 디지털기반담당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찰, 임성근 불송치... “대대장이 수중수색 오인 지시”

“임성근, 직권남용 아닌 월권” 이 행위는 군 내부서 처리해야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은 송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경북경찰청은 8일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며 이 사건을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6명은 신속기동부대장인 해병대 7여단장, 포7대대장, 포11대대장, 포7대대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및 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

그러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7여단장은 육군 50사단장의 작전지휘를 받아 예천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로 안전한 작전수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장화 높이’까지의 수중수색을 강조했다. 또 포11대대장의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색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의 부족, 소극적 지시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서 포11대대장의 임의적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성근 전 사단장과 포7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며 “월권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한다. 이 행위는 군 내부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6시 5분쯤 기사 8개 링크모음과 사진 12장 사진을 카톡으로 받았는데 이런 행위는 언론스크랩으로 일

상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병대 관련 언론 기사 링크를 모아 사단장과 여단장 및 대대장 등 지휘부 다수에게 전파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내린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로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쯤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비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오후 11시 8분쯤 약 7km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박정훈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착수했고, 임 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이 숨진 그해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은 24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군, 지자체, 소방 등 관련자 67명을 조사하고 해병대 사단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자료 190여점을 분석한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런 결론을 내렸다.

뉴스1

KORAD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방폐장 운영 최선” 한수원, 뛰어난 재난관리 능력 ‘인정’

배터리실 화재 대비 특별 점검 자동소화설비 작동상태 등 확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이하 공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중저준위 방폐장 배터리실 등 14곳의 안전조치 현황을 일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생산공장 화재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했다.

공단은 방폐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주요 전기설비의 건전성과 배터리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하고, 해당 건물의 난연 시공상태와 화재가 발생했을 시 즉시 소화 조치 가능한 자동소화설비의 작동상태 등을 점검했다. 또한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상태를 직접 점검해 화재를 비롯한 안전사고 대비 태세를 확인했다.

한편 공단에는 최근 문제가 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실제 화재발생에 대한 불시 대응력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방폐장과 본사 사옥에 대해 경주소방서와 함께 소방훈련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훈련을 시행하여 화재대응 체계의 현장 작동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성돈 이사장은 “배터리 시설의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진화가 어려운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시설

보완 등 예방 활동과 재난사고 대응 훈련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방폐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seoul411@hanmail.net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에너지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338곳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주요 역할을 진단하는 종합 평가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피산댐 월류 시 적극적인 지역주민 대피 지원,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철저한 재난 예방·대비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한수원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까지 더해 한수원은 2023년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 분야 3대 평가에서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뛰어난 재난관리 능력을 인정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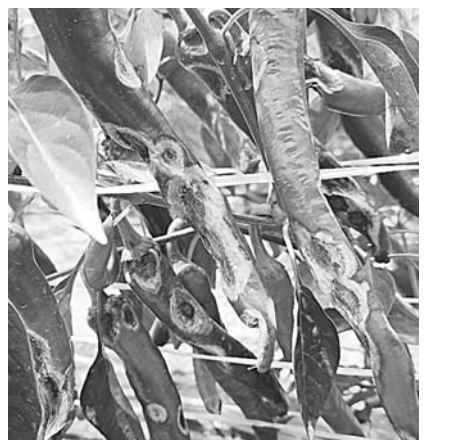
서경규 기자seoul411@hanmail.net

장마철 농작물 탄저병 ‘비상’ 안동농기센터, 피해 줄이려면 정기적으로 약제 살포 ‘당부’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철저한 예방 위주의 병해충 방제와 시설물 관리를 당부했다.

장마철에는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며 특히 곰팡이병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장마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병해충으로는 탄저병, 역병 등이 있다.

탄저병은 곰팡이균에 의해 발생하며 감염 부위에 수침상으로 움푹 들어간 원형 반점과 담황색 포자덩어리가 나타난다. 탄저병을 일으키는 주병원균은 주로 빗물에 의해 전파되므로 장마기 전 예방적 약제 살포가 매우 중요하다. 역병은 주로 뿌리와 줄기 밑동에서



발생하며 거무스름한 병반이 형성되며 시들어 말라 죽는 것이 특징이다. 비오는 날씨가 이어지면 병원균이 물을 따라 이동해 2, 3차 감염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병징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성분이 다른 약제를 교차로 살포해 방제 효과를 높여야 하며 병든 과실을 발견하는 즉시 제거하는 것이 좋다. 오명수 기자toms727@nate.com

경북도,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몰카 ‘꼼짝마’

휴가철 대비 10일부터 일제 점검

경북도는 이달 1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도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경북도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도내 해수욕장 등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일부터 일제 점검을 하고 시군별 지역 실정을 고려한 효율적인 안전·편의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휴가철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해수욕장, 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설치돼 있는 공중화장실을 집중해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한 소독·방역 이행 여부, 휴가철 이용객 증가에 따른 공중화장실 확충 대책, 범죄·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위생·정결 강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비상벨·경광등 시설 작동 여부,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와 의심 흔적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범죄 예방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공중화장실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신체접촉이 빈번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소독 여부 등 방역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비누, 휴지 등 편의용품 비치,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이용 가능 여부 등 이용객의 편의시설 이용 증진을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

경북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 문제점 해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경북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기완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관광지 등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과 시설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의영 기자p04140@naver.com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070604-중-326호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진액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 등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이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액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 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료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에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커플 매니저 경주, 미혼 남녀 60명 만남 주선

한수원·한전·교육청·시청 등 20세~39세 지역 직장인 대상 이벤트로 자연스러운 매칭 유도
주낙영 시장 “행사를 계기로 저출생 문제 극복 도움 되길”



미혼 남녀들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지자체까지 발 벗고 나섰다. 경주시가 미혼 남녀들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지난 6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청춘 동아리, 두근두근 설렘의 시작’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시는 미혼 남녀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참가자들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경주에 주소지를 둔 20~39세 직장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다. 모집 기간 참가자들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재직증명서 등도 별도로 받아 철저한 신원 확인 과정을 거쳤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경주교육지원청, 시청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미혼남녀 60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참

가자들의 성격과 유형 등에 따라 서로에게 어울리는 상대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이어 전문 MC의 진행으로 레크리에이션, 연애 코칭 등의 이벤트를 거쳐 남녀 간 자연스러운 매칭을 유도했으며 설렘 반 기대 반으로 3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매칭된 남녀 참가자

들은 다음달 9일까지 △도자기 공예 △떡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만남을 이어가게 된다. 경주시는 사는 곳과 직장이 같은 지역인 데다 참가자들의 신원까지 꼼꼼히 검증된 만큼 많은 수의 남녀가 연인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실제로 몇 쌍의 커플이 탄생했는지는 오는 8월 10일 개최될

‘에프터 파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 내 미혼남녀들을 위한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결혼 친화적 분위기 조성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최무현 신경주대 교수, 市 총괄건축가 선정

“최고 가치수준 지향할 것” 포부
2년간 도시공간 조성 역할 담당

경주시는 ‘제3대 경주시 총괄건축가’로 최무현 신경주대 전통건축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최 교수는 초대 이대준 한동대 교수와 제2대 현택수 경일대 명예교수에 이어 앞으로 2년간 총괄건축가 직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했으며 제2대 총괄건축가 임기 종료와 함께 새로운 총괄건축가를 영입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해 왔다. 최무현 교수는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경북 건축위원회위원, 경북문화관광공사 설계심의위원, 경주시 건축심의위원·고도육성지역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거나 역임한 바 있다.

또한 지역대학 전문가들의 모임인 ‘경주고도육성포럼’과 ‘경주학포럼’ 등 단체에서 회장 또는 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최 교수는 총괄건축가로서 경주시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로 수준 높은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최무현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은 일반 시민 모두가 향유하는 공간환경이므로 최고 가치수준을 지향하겠다”고 위촉 포부를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는 타 도시와 다른 역사와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건축이 경주에 맞는 품격 높은 건축디자인 도시로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경규기자seoul411@hanmail.net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확대 ‘조례 개정’

보조금 300만원→400만원 상향

경주시는 도시가스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시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이하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던 보조금 규모를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경북 시·군 중 최고 수준이다. 8월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위한 예산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체 사업비를 10억원으로 높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해 198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한 바 있다. 경주시는 이번 조치로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토대로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 등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김헌규 환실협 총재 “소외된 이들의 자립 기회 제공 매진”

필리핀 봉사활동 통해 국위선양
원자력정책연대·한수원노조 협력
사랑의 인형 500여개 외 물품 기부

1만5000가구에(5개 마을)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 및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교육도 실시했다. 김헌규 환실협 총재는 “국제사회에서조차 소외된 이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것에 기초를 둔 상호 교류 증진, 우호협력 관계를 조성해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두 한수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필리핀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의 인형 모으기’는 많은 조합원들이 원자력에 대한 선한 이미지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과 관심의 결실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재 (사)원자력정책연대 이사장은 “청정에너지 원자력을 알리기 위한 환실협 회원들과 한수원 노동조합원들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밀거름이 되는 것에 감사드리며 원전 산업 발전과 국민소통을 위해 더욱 돈독한 관계를 이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경희 환실협 사무총장은 “저희 환실협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특히 저개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건강과 희망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

갈 것이며 이번 한수원 노동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은 인형을 정성스럽게 모아주셨는데 행사 종료 후에도 추가적으로 보내온 인형들은 현재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아동을 돕기 위한 성금 마련 바자회를 통해 원자력과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시, 황오동 도시재생 사업구역
주민제안공모 참여 단체 모집
15일부터 22일까지 신청·접수
최대 1000만원 지원, 관련 교육

경주시가 도시재생사업에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발굴하고자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 선정된 단체는 환경 및 미관개선, 주민공동체 활성화, 황오동 원도심 마을 자원조사,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사업 유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며 사업은 11월까지 진행 예정이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단체별 일반 공모는 최대 500만원, 기획공모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컨설팅과 회계 교육을 정기적으로 지원한다. 또 주민들의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1일 오후 3시 황오 작은도서관(원호로 142, 1층)에서 관심 있는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접수는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현장접수(원호로 142, 1층) 또는 이메일 (koalakj123@naver.com)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 및 접수의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현장센터(054-775-2598)로 문의하면 된다. 이대수 철도도시재생과장은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동현기자dogh0311@naver.com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어린이 보호

주정차금지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휴일·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12만원(승용차 기준)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맞은 경주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도시 경주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洪 “TK행정통합 특별법 합의안 도출 최우선”

제2국가산단·TK신공항 논의 관계부처와 적극적 협의 지시 산하기관 이전·리모델링비 등 간접 비용도 추계해 정부 요청



아울러 “정부는 행정통합의 직·간접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이전, 리모델링 비용 등 간접 비용까지도 정확히 추계해 정부에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귀어축제가 열리는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해 집회제한구역에서 도로점용허가도 안 받고 무분별하게 집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대구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경제부의 ‘제2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 보고 후 “제2국가산단에 산업시설 용지 면적보다 많은 수의 기업수요를 확보했다”며 “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인허가 승인 등의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공항건설단의 ‘TK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 등 추진상황’ 보고 후 “현재 대

구시는 TK신공항 건설을 위해 공동합의문 조항대로 잘 진행하고 있으며 의성군에 물류터미널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대구시는 찬성한다. 국토부·경북도·의성군과 긴밀히 협력해 TK신공항이 제대로 건설되도록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시장은 “하절기가 돼 늘어서기 쉽지만 지금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할 시기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힘을 합쳐 분발하도록 하자”며 “행정부시장 소관 부서는 행정통합이 포함된 ‘시장혁신 100+’ 사업을 전제적으로 완성하는데 노력하고 경제부시장 소관 부서는 ‘TK신공항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달성교육재단, 청소년 영어 잠재력 UP

초·중등영어 여름방학캠프 OT 안전교육·질의응답 시간 가져

(재)달성교육재단은 지난 6일 ‘2024 초등영어 여름방학캠프’와 ‘2024 중등영어 여름방학캠프’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발된 학생 및 학부모, 관계자 등 170여명이 참석했으며 프로그램 세부일정 및 현지 생활방법 안내, 안전교육과 더불어 질의응답을 통해 여름방학캠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2024 초등영어 여름방학캠프’에 선발된 지역 내 초등학교 6학년 30명은 오는 27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8월 24일까지 필리핀 바콜로드에 머물며 원어민과의 영어 학습, 봉사활동, 문화체험 등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필리핀 현지 초등학교 수업 참여가 계획되어 학생 간 정서·문화적 교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2024 중등영어 여름방학캠프’는 지역 내 중학교 3학년 28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 일원에서 진행된다.

선발된 학생들은 CEA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은 샌디에이고 CEL(College of English Language)에서 영어 수업을 받게 된다. 평일 오후 및 주말에는 미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예정이다.

해외 연수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절감할 것도 눈여겨볼 수 있다. 두 캠프 모두 항공료 및 개인 용돈을 제외한 모든 교육비를 달성교육재단에서 부담하며 저소득층에는 항공료도 지원한다.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에 참여한 학부모 A씨는 “경제적 부담이 큰 해외 연수를 달성교육재단의 좋은 사업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최재훈 이사장은 “이번 캠프가 우리 학생들이 영어교육은 물론 다양한 문화를 접해 시야를 넓히고 본인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달성교육재단은 앞으로도 수준 높은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장종찬 기자 jongchan2114@naver.com

군위-도시개발공사, 어린이 위한 복합문화시설 건립 ‘눈길’

아이사랑키움터 조성 사업 MOU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연구



군위군은 지난 5일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군위군 아이사랑키움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군위군 아이사랑키움터 조성사업’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군위군은 군위를 일원에 사업비 128억원을 투입, 지상 6층의 규모의 대형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군위군 아이사랑키움터 조성사업’은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서 이뤄지는 정규 학습시간 외에도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 놀이와 문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책 놀이터를 비롯해 키즈카페와 실내스포츠놀이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디지털 교육실, 아이들의 사고력 향상과 학습 성취도를 높여 줄 체험공간 및 교육공간 등으로 채워 나갈 예정이다.

군위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건축기획과 설계, 시공을 거쳐 오는 2027년 시설을 준공할 계획이며 그 기간 동안 아이사랑키움터를 채워 나갈 다양한 교육·문화·놀이 프로그램들을 연구·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 외에도 군은 교육과 돌봄에 큰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들

을 추진 중에 있다. 군 출연 공익법인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및 독서 교육프로그램과 다양한 진로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사교육에 불리한 지역적 약점을 극복하고자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몰입영어교실’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각급 초·중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과 아울러 지역돌봄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영유아 돌봄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다양한 예체능·취미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합장단 및 오케스트라 운영, 테니스부 지원 등을 통해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여가와 자기개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군은 대구시교육청 및 대구시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다양한 늘봄사업 추진의 토대가 마련돼 교육과 돌봄 사업을 더욱 확장에 나갈 계획이며 군위초등학교의 IB프로그램 관심학교 지정, 군

위중학교의 IB초학교 지정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IB프로그램에도 큰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진열 군수는 “저출산 시대에 육아와 교육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수 기자 power5151@naver.com

대구보건대 사복과, 캄보디아 자원봉사

대구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과 씨엠립에서 ‘해외자원봉사·문화체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25명이 참여했으며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다양한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주요 활동으로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교류활동, 캄보디아 대학과의 교류가 진행됐으며 재학생들은 캄보디아 아이들과 함께 부채 만들기, 손거울 만들기, 한글 교육 등 교육봉사를 운영했다.

특히 한글 교육은 큰 호응을 얻었다. 또 현지 어려운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봉사를 실시해 현지 주민

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했다. 이어 방문단은 문화교류 활동으로 K-푸드 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캄보디아 왕립 농협 대학과의 교류도 이뤄졌으며 학생들은 현지 아이들과 함께 대학을 방문해 국립도서관을 견학하는 등 학문적·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봉사에 참여한 사회복지학과 학생은 “봉사를 통해 캄보디아 아이들과 학교에서 배운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임성범 학과장은 “학생들의 글로벌 소양을 향상시키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 kwondrumkakao@daum.net

살국유사의
눈길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파워풀 대구와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 영양, 눈부신 발전 이뤘다

오군수, 정치권 접촉 공모 공세 농업 등 총 사업비 1570억 확보 郡 한 해 예산 38%... 도내 최고



민선8기 영양군은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재정축소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변화, 희망찬 영양'으로 가는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공모사업비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오도장 군수는 민선8기 취임사에서 선거기간 중 약속했던 예산 5000억원 달성, 고추생산 1위, 농가소득 6000만원 달성이라는 '5·1·6 프로젝트' 실현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눈부신 영양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으며 영양 발전을 위해 미래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보고서 역량강화교육, 직원 선진지 견학, 6급 팀장급에 이어 7·8급 군정시책보고서 평가 실시로 공모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는 물론 직원조회 및 간부회의의 시 수시로 열악한 재정여건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편 오군수 본인도 '공모 군수'를 자처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공모 공세를 펼쳤다.

민선8기 영양군은 농업, 생태관광, 사통팔달 교통 여건 개선에 주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총 38건 1570억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는 무려 영양군 한 해 예산(4000억원)의 38%에 달하는 엄청난 재원으로 공모실적은 도내 최고 수준이다. 놀라운 것은 올해 상반기에만 5건에 97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 농업분야 9건 289억원
영양군은 군민의 50%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최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소득작물 및 기후, 소비자 기호 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화매지구 논범용화우수공급체계 구축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146억원은 기존 논 위주 급수방식의 불안정한 우수공급체계 개선과 쌀보다 소득이 높은 상추 등 엽채류 재배 확대에 활용되며 농업근로자 기술사건립지원사업으로 확보한 50억원은 안정적 농작업 인력수급으로 인

건비 상승을 억제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 '외국인계절 근로자' 등의 숙소 건립에 쓰일 예정이다.

■ 지역개발분야 9건 989억원
지난해에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 기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확보한 112억원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에 연차적으로 투입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민간협력지역상생 협약사업 공모액 157억원(㈜발효공장 1991(대표 이동훈)과 올해부터 3년간 전통 발효 기술을 활용한 제조·체험·휴식 시설인 발효감각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뿐만 아니라 작자나무숲, 지훈 예술제 등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2025 농촌협약'으로 확보한 366억원 중 160억원은 영양 버스터미널 복합화를 추진하고 입암·일월·수비·석보면의 지역거점시설 건립(각 40억원)과 청기면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지역 내 읍·면을 대상으로 농촌다움 복원과 생활서비스 기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동부리 농촌공간정비사업 181억원, 교육부 영양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39억원 등도 정주환경 개선에 활용된다.

■ 문화관광·체육분야 12건 211억원
영양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죽파리 '영양자작나무숲'과 지난 2015년 아시아 최초 '국제발효농산물'으로 지

정된 수하리 밤하늘, 포산리 '장구메기습지' 등 영양만이 보유한 생태관광 자원으로 힐링생태 관광 메카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사업비 120억원으로 국제발효농산물 일원을 밤하늘 특화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 8억원의 공모액으로는 영양 원돌음 연행 행렬 복원과 전승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보한 영양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개보수 18억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20억원, 인도어골프장 증축 및 개보수 20억원, 영양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개보수에 18억원 등은 군민 행복과 건강복지 증진에 투입된다.

■ 공모로 완성해 가는 희망찬 영양
민선8기 2년째인 지난해에는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2조 1000억원 투입되는 양수발전소를 유지하는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 왔다.

오도장 군수는 "공모실적 1등 공신은 '행복한 변화로 희망찬 영양'을 꿈꾸는 군민들의 염원과 믿음"이라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밤낮을 이어가며 열심히 일해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한 "공모사업에 힘썼던 것처럼 선정된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더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11@naver.com



예천군, 1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꽤 거'

도 제안제도 운영평가 '최우수' 지역 적합 제안 발굴 긍정 평가

예천군은 경북도에서 주관한 '2023년도 제안제도 운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군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1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제안제도 현황에 대한 제안 운영실적, 특수시책, 홍보 노력도, 자체 공모제안, 생활공감정책추진단 활동 실적, 기관장 관심도 등 9개 항목에 대해 심층적인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군부 최우수상을 받은 예천군은 젊

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시 제안 활성화를 위한 '혁신주니어보드' 운영과 지역 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문제 해결 방향을 도의하고 관리하는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제안을 발굴하고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으며 평소 혁신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한 공직문화가 좋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제안제도는 생활 불편사항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주요시책으로 예천군에서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군정 발전 제안, 생활불편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며 군민과 함께 발전하는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외경 기자p04140@naver.com

봉화군, ASF 확산차단 '틈새 없는 방역'

양돈농장 출입 통제·차량 소독

봉화군은 도내에서 지난달 15일 영천에 이어 이달 2일과 6일 안동과 예천에서 잇달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됨에 따라 지역 내 양돈농장으로 확산차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긴급 조치사항으로 △발생농장 역학관련 2곳의 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 △양돈농장에서는 출입자 통제와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및 농장 매일 소독 △축협공방단 및 군 방역차량 4대를 동원해 취약농장 및 인접도로에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24개 농장에 전담관을 지정해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ASF 발생정보,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단계 채팅방 활용으로 농장과 실시간 공유하며 보유 중인 생석회 10t, 소독약품 100L, 발판소독주 150개를 배부했다.

박현국 군수는 "최근 발생농장은 인



군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다수 발견됐고 지역 내에서도 지난 2022년 12월 석포면을 시작으로 올해 5월 춘양면까지 10개 전 읍·면의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90건 검출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양돈농장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ASF 확산은 올해 여섯 번째이자 경북에서 네 번째 발생이다. 올해 ASF는 △지난 1월 16일 영덕군 △1월 18일 경주 파주시 △5월 21일 강원 철원군 △6월 15일 영천시 △2월 안동 시에서 확진된 바 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안동 야외 물놀이 개장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무료 입장, 월요일 휴장

안동시는 8일 지난해에 이어 정하동성화여고 앞 낙동강변 둔지(정하동 635번지)에 야외 물놀이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확대 개장한 물놀이장은 넓은 공간에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한다는 입소문을 타고 한 달간 3만 1000명이 방문하는 등 시민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기존 설치된 물놀이형 조합놀이대 5개소, 바닥분수, 팽귄수영장 외에도 휴게공간에 720㎡의 대형텐트 설치로 보호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수질관리를 위해 설치한 수영장 주변에 데크시설을 통해 수영장으로 입장한다.



또한 물놀이장 옆 하천수를 이용한 자연형 물놀이장도 함께 개방한다. 자연형 물놀이장은 바닥면적 300㎡ 정도의 넓은 공간으로 평소에는 맨발 걷기 체험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페달보트 체험, 물속 걷기 체험, 물

고기 잡기 체험장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야외 물놀이장은 오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31일간 운영한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소독

과 수질검사, 시설물 관리를 위해 휴장한다.

운영 기간 중 물놀이장 옆에서는 K-POP 콘서트(27일), 수(水)페스타(27일~8월 4일)가 열린다.

오명수 기자toms727@nate.com



준비된 땅 상주!

입지, 교통, 인프라, 탁월한 미래가치까지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수도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군사시설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군사시설 최적지 상주!

최적의 입지와 교통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2시간 이내의 접근성, 중부내륙철도 개통(예정)으로 더 빨라진 KTX역세권

원스톱 지원과 풍부한 인프라

이전사업 TF팀의 원스톱 지원과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일자리까지 부족함 없이 누리는 민군상생협력타운 건설

군사훈련 최적지

너른 평지와 저렴한 공시지가, 다양한 지형을 조화롭게 갖춰 전술적인 훈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

결집된 유치 의지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군사시설 이전 유치 홍보활동 전개



상주시 SANGJU CITY

구미, 실시간 주차 정보 모바일로 '간편하게'

공영주차장 통합 주차 정보 제공 24시간 무인 원격제어 방식 운영 요금 자동 결제, 무정차 출차 구현

구미시가 8일부터 도내 최초로 공영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통합 주차 정보시스템을 제공한다.

통합 주차 정보시스템은 공영주차장을 디지털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해 △통합 주차관제 센터 △모바일 실시간 주차 정보 △무정차 시스템 △지갑 없는 주차장 △감면 사전등록 비대면 서비스 △QR코드 사전 결제 시

스템 등이다. 이중 지갑 없는 주차장과 QR코드 사전 결제 시스템은 오는 9월 중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24시간 무인 원격제어 방식으로 운영, 주차장마다 분산된 주차관리소를 일원화해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합 주차관제 센터는 봉곡동 자전거안전교육장 건물에 위치하며 구미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한다.

구미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모바일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뒀다.

반응형 웹 구현을 통해 모바일로 실시간 주차장 내 빈자리를 확인할 수 있어 더 이상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맬 필요 없으며 출차 시에도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다. 전입자·다자녀 가정의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전액 감면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창문을 내려 다동 e앱 등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구미시 주차 포털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감면 대상 사전등록 신청을 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무정차로 출차 가능하다.

오는 9월 중 제공되는 지갑 없는 주차장은 손을 창문 밖으로 뻗어 결제하는 과정에서 정산기와의 먼 거리, 카드

결제 오류 등을 개선한 것으로 주차 포털 사이트에 카드를 등록하면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차량 번호판 인식 시 무정차 출차와 함께 자동 결제된다.

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주차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며 시스템 도입 후에도 시민들의 불편 사항, 요구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김창호 시장은 "통합 주차 정보시스템 구축은 짧은 도시 구미에 걸맞은 스마트한 공영주차장 운영으로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김천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 만전

경찰·소방·관계부서와 회의 열어 대형 화재 발생 시 협력 방안 논의

김천시는 지난 5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대형 공장 화재와 관련해 시 관계부서와 김천경찰서, 김천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피드백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19일, 20일 발생한 대형 공장 화재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유출과 관련한 대응 현황 설명 후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중장비 등 재난관리자원 동원 체계 구축과 재난 현장 장비와 물품 비축, 재난 안전통신망(PS-LTE) 등 상시 소통 채널 활용 등을 논의했다. 시는 향후 신

속한 사고 전파와 관계기관과 기업체의 실제적인 훈련 등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강연진 건설안전국장은 "대형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시설물 안전장치 점검에 철저히 하고 시에서는 예방행정과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기업체와의 상호 협력 대응해 시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내는 안전 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달 19일 새벽 어모면 산업단지 내 대형 화재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비상체계를 돌입,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재 사고 수습과 환경오염 사고 방지에 신속 대응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로컬매니저가 알려주는 '성주살이의 매력' 들어볼래요?

여행 서포터즈 발족, 활동 본격화 체류 프로그램으로 인구 유치 '힘'

성주군은 지난 5일 창의문화센터 평생교육실에서 듀얼라이프 성주살아보기 프로그램인 '2024 어서와 성주는 처음이지' 로컬매니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로컬매니저는 성주에 사는 지역주민이 성주 외 지역의 지인을 초청해 성주의 매력을 알리는 여행 서포터즈이다.

이날 행사에는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된 36명의 로컬매니저를 비롯한 이병환 군수, 도희재 군의장, 관광두레협의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로컬매니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어서와 성주는 처음이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성주에서 살고 싶



은 누구에게나 성주 지역에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로컬매니저들이 직접 기획한 다양한 주제의 체류형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생활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병환 군수는 "지역소멸 위기가 시대적 화두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정부에서는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지표를 통해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성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는 프로그램 기획으로 성주의 매력을 알리고 나아가 그들이 성주군에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일호 기자hoyai1515@daum.net

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 농업 발전 '앞장'

지역먹거리 활성화 시민포럼, 심포지엄 성황리 마무리

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에서는 지난 5일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에서 2024년 제1차 지역먹거리 활성화 시민포럼 및 심포지엄 '더 가깝게, 더 맛있게'를 개최했다.

1부 심포지엄에서는 공공급식, 다중위기시대의 지역순환농업의 가치, 먹거리로 드러나는 삶의 질, 타지역의 먹거리정책 사례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있었으며 참가자들과 함께 지역먹거리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시민포럼에서는 김영희 추진단장의 주제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패널들이 참석해 지역먹거리 정책, 지역먹거리 활성화, 미래농업, 공공급식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현황과 과제, 나아갈 길 등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문제점 해결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심포지엄과 시민포럼을 마친 후 지역농산물을 주제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함께 맛보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

역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민들에게 공급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다. 추진단에서는 이 사업이 종료(올해 말)된 후에도 지속적인 지역먹거리 활성화를 위해 농민과 소비자, 농장과 식탁, 생산과 소비,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이어주는 구심점인 역할을 할 먹거리연대 사회협동조합 '상주이음(가칭)'을 설립해 지역먹거리 산업을 이끌어갈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강영석 시장은 "우리 상주시의 우수한 농업환경에서 많은 분이 최고의 농사를 짓고 있다. 더 많은 상주시민들에게 먹거리의 감사함과 지역순환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먹거리, 우리 이웃의 농장에서 식탁으로 바로 오는 로컬푸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으로 상주농업의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칠곡보건소, 폭염 피해 최소화 '최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안부 전화·가정 방문 실시

칠곡군보건소는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쓰고 있다.

이에 간호사 등 8명으로 구성된 방문보건인력을 지역 맞춤형 담당제로 편성해 대상자들에게 안부 전화 및 가정방문을 꾸준히 실시, 건강상태를 확인

하고 온열질환의 증상 및 대처요령 등을 교육한다. 또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심뇌혈관질환 예방법과 온열질환 대처법이 안내된 부채 배부와 함께 여름철 건강관리와 응급상황에 대한 행동요령 등을 교육하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재욱 군수는 "취약계층 어르신 및 주민 모두가 폭염에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고령군,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본격화

AI·IoT 디지털 헬스케어 나서

고령군은 '2024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늘 건강' 앱과 스마트 기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공공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이다. 현재까지 160명의 어르신이 등록을 완료해 목표 등록인원 150명을 상회했다. 등록한 어르신들은 6개월 동안 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매달 '제대 약 먹기', '혈압 측정하기' 등의 건강미션을 수행하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인력들의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므로 시간과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대면중심의 보건사업과 큰 차이를 나타낸다.

내년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현재 모집하고 있으니 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연락하면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일호 기자hoyai1515@daum.net

아리따움 경주점
대표 박 선 이

경주시 계림로 102
☎ 054-749-7979

아시아나스포츠
대표 최 병 진

경주시 화랑로 47
☎ 010-5588-9999

스멜스라이크브레드
대표 황 숙 향

경주시 광종길 24 127호
☎ 054-3523-1308

포항시 “도심 속 물놀이장서 더위 날리세요”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 등 6개소서 8월까지 운영키로 市, 시설·수질 등 안전 점검

포항시는 한여름 시민들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도심 속 야외 물놀이장 6개소를 연이어 개장한다.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 숲속 물놀이장은 10일 개장에 오는 8월 31일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는 안전상의 문제로 유아물놀이장 1곳만 운영할 예정이다.

월·목요일은 시설물 점검 등을 위해 운영하지 않으며 우천, 태풍 등 기상악화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도 휴무할 예정이다.

시는 쾌적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숲속 물놀이장 개장에 앞서 수질검사를 완료했으며 월 2회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안전요원 배치로 이용수칙 지도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한 준비에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물놀이장 개장에 맞춰 입구에서 물놀이장까지 약 170m 구간에 맨발로를 조성·운영할 예정이다.

양덕 한마음다목적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도 1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안전사고 예방 및 혼잡 방지를 위해 선착순으로 오전·오후 150명만 이용할 수 있으며 월·목요일은 휴장한다.

영·유아들은 부모 동반 시 입장 가능하고 안전을 위해 아쿠아슈즈를 착용해야 하며 물놀이장 내에는 음식물 반입과 반려동물 입장도 금지된다.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과 포은 어린이 물놀이장은 오는 13일 개장에 8월 27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은 오전·오후 각 700명의 인원으로 제한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물놀이 이용 신청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은 이용일 기준 5일 전 오전 12시부터 접수할 수 있다. 입장료는 성인 및 청소년 5000원, 어린이(12세 이하) 3000원이며 1세 미만 영아는 무료다.

오천체육문화타운 내 포은 어린이 물놀이장은 1일 3회차로 나눠 운영되며 매주 월·목요일은 휴장이다. 12세 이하만 이용 가능하며 5세 이하의 보호자 동반 입장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장성 침촌근린공원 물놀이터는 지난 2일 이미 운영에 들어가 오는 8월 31일까지 개장하며 네이버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오전·오후 각 70명씩 이용할 수 있으며 월·목요일은 휴장이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계면 소재 농경 절기문화 테마공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을 위한 어린이 물놀이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오전·오후로 나눠 2회 운영되며 매주 월·목요일은 시설물 점검 등을 위해 휴장한다.

일일 입장객은 200명(1회차 100명, 2회차 100명)으로 제한해 예약 운영되며 입장일 기준 7일 전부터 사전 전화(054-251-2533) 예약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물놀이장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수질 점검 등 안전에 철저히 기하고 있다”며 “이용객들도 안전수칙을 준수해 쾌적한 물놀이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연대 기자cyl4568@naver.com



경산 서부2동, 초복맞이 어르신 수박 나눔

안근상 동장과 김수열 명예동장 경로당 21개소 방문 간식 등 전달

경산시에서는 안근상 서부2동장과 김수열 명예동장이 함께 초복을 맞아 지난 5일 서부2동 경로당 21개소를 방문해 수박과 간식을 전달하고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이날 전달된 수박과 간식(100만원 상당)은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이 여름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김수열 명예동장이 정성껏 준비한 것이다.

김수열 명예동장은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고 싶었다. 큰 선물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수박과 간

식을 드시며 건강하게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정동은 서부2동 노인회 분회장은 “바쁘신 가운데도 일일이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신경 써주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안근상 동장은 “이번 여름도 폭염과 호우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폭염대비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무더위쉼터도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도시 청년보다 잘 살 수 있는 ‘울진농업대전환’ 이룬다

울진농업인한마음대회 ‘대성료’ 농업인 간 화합·정보 교류의 장

울진군은 지난 3일 북면 흥부생활체육공원에서 700여명의 농업인과 손병복 군수, 김정희 군의장 및 의원, 김재준 경북도원과 지역 내 농업 관련 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울진군농업인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농업인한마음대회는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 관련 4개 단체인 한국농촌지도자울진군연합회, (사)한농연울진군연합회, 한국생활개선울진군연합회, 울진군4H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요 행사 내용은 ‘울진농업대전환! 농업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우수 회원 표창, 화합행사, 농업대전환 성과 홍보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돼 합



개한 농업인 상호 간의 화합과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 경품으로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울진군연합회와 김동규 백암농장(한우육종 농가) 대표가 우량 송아지 1마리씩을 기증해 함께한 농업인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황현 울진군4H연합회 부회장은

은 대회를 통해 “농촌 고령화와 저출생 등 농촌이 맞닥뜨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시 청년보다 잘 살 수 있는 성공 모델 ‘울진농업대전환’을 통해 농업인의 손으로 이뤄 나가자”라고 다짐했다.

손병복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평해읍 월송들 일원 임모작 재배단지 운영으로 노동력 절감 및 소득향상, 무인헬

기 공동방제, 표고버섯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지난 1년간 농업대전환을 통해 울진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성과를 보여줬다”라며 “수소중심 도시 울진건설과 함께 농업분야에서는 여기 계신 농업인들이 부자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청도,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당선작 선정

청도군은 8일 ‘(아이) 좋아~ 사랑한 day♥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당선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저출생 극복 및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과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했으며 총 133작품(사진 88건, 숏폼 영상 50건)이 접수됐다.

심사위원단은 적합성, 창의성, 작품성 등을 고려해 최종 18작품(△최우수 2점 △우수 2점 △장려 6점 △입선 8점)을 선정했다.

△최우수상 사진 부문에는 ‘즐거움이 방울방울, 꿈이 방울방울’이 △숏폼영상 부문에는 ‘황소리들야구단의 청도행복현장’이 차지했다.

△사진 부문 최우수(1명) 80만원 △우수(1명) 50만원 △숏폼영상 부문 최우수(1명) 100만원 △우수(1명) 70만원 등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선정된 작품은 저출생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자료로 널리 활용될 계획이다.

시상식은 오는 8월 9일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린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경산시립도서관, 정지아 작가 특강 ‘호우’

경산시립도서관은 지난 6일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정지아 작가를 초빙해 진행한 작가와의 만남 특별강연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김유정문학상, 심훈문학대상, 이효석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문학성을 두루 입증받은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2022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2022년과 2023년 상당

기간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했다.

특강은 아버지의 해방일지 창작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며 진행됐다. 정지아 작가는 실제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 구례에서의 삶이 작품에 준 영향 등의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풀어나가 참가자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영천, 신중년 고용지원 2차 모집... 취업장려·구인난 해소

영천시는 지난 5일부터 지역 내 중장년 유능인력에 대한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2차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40~64세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올해 1월 1일 이후)

하는 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제도로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월 70만원(급여의 40% 이상 사업체 부담 필수),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월 50만원(급여의 30% 이상 사업체 부담 필수)을 연달까지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10명, 소상공인 5명으로 총 15명이며 중소기업은 사업장별 최대 3인, 소상공인은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 고용형태(주 40시간 이상 근무)로 월 기본급 206만74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

시간 이상 근무형태로 최저 임금 9860원(시간) 이상 지급해야 한다.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청 일자리노사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요건,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전화(054-330-6672)로 문의하면 된다.

정식열 기자sy92920@hanmail.net

대구경북교육신문

대표 백재욱

경주시 초당길 5번길 3
(동천동, 2층)

☎ 010-7755-2933

(주)세영클린텍

대표 양창권

경주시 천북면 천강로 90

☎ 010-3539-9395

경상투데이

광고 문의

대표전화

☎054-748-0070

경주시 양정로235(동천동)
덕양빌딩 8층

김학동 군수, 호우피해 선제대응 '진두지휘'

예천 지역 내 취약지 현장점검 구호물자 확보·지원 체계 재확인 비상체계 가동·행정력 총동원 군수 "침수지역 절대 접근 금지 기상 상황 변동 예의주시" 당부

김학동 예천군수는 8일 오전 10시 호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보면을 시작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농작물 시설 등 재난 취약지구 등 지역 내 일원 현장점검에 나섰다.

군은 지난 6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기대응 단계에 돌입해 군수 주재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호우특보에 따른 비상체계를 즉시 가동하는 등 호우피해 대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학동 군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진두지휘하고 지보면 농경지 침수지역을 시작으로 풍양면을 거쳐 직접 읍·면현장을 둘러보며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군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대비 중이며 공무원과 마을주



민으로 구성된 '마을순찰대'를 운영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읍·면과 실·과·소 직원으로 구성된 '마을 1전담 공무원'을 투입해 가동 중이다.

또한 군은 응급 복구 장비, 재해구호

물자 등 재난자원 확보와 지원 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천, 배수 시설 등 공사장 작업 중지 및 사전 출입 통제 등 안전 조치와 함께 긴급재난 문자 발송, 마을 엠브 방송으로 주민들이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김 군수는 "며칠째 비가 이어져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 주민들께서는 붕괴 위험 지역이나 침수지역 인근에는 절대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주)안상규별꽃, 칠곡 저출생 극복 '응원'

성금 500만원·아카시아별꽃 전달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이바지

칠곡군은 8일 (주)안상규별꽃로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500만원과 아카시아별꽃 200병(5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안상규 대표는 별수업 세계기네스북 기증 보유자로 경북적십자사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안상규 대표는 "국가적인 위기 저출생 극복에 함께 동참하고 여름철 건강이 취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재욱 군수는 "저출생 극복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마음을 전해준 안상규대표 대표에게 감사하다"라며 "전달해준 소중한 성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저출생 극복 대책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칠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달된 성금은 저출생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저출생 극복 성금 모금 캠페인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군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송홍달 기자son081700@naver.com

의성, 폭염 사각지대 찾아 건강관리 나서

9월까지 1185명 대상 안전교육

의성군은 하절기 폭염 대비 지난달부터 오는 9월까지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1185명에게 온열질환 발생 예방과 건강한 여름나기 교육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독거 어르신, 외딴집 거주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 안부 및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경로당을 순회하며 여름철 폭염 대비 국민 행동요령 및 건강수칙 교육, 자외선 차단 모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집중 관리를 위해 주말·공휴일에도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폭염 대비 건강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 "건강관리에 취약한 1인 가구 거주자 등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건강 취약계층 파악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으며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 모니터링과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구미대, 현장 수요 맞춤형교육으로 '반도체 전문 인력' 키운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5년간 70억원 정부 재정지원 받아

구미대학교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선정돼 지역 수요에 맞는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지원하는 이 사업은 급변하는 신기술 및 첨단분야의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 첨단 분야 인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구미대는 경북도 경북형 K-U시티, 구미시 반도체 특화단지 구축 정책에 발맞춰 지역 수요 맞춤형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구미대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5년간 약 70억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다. 이 사업을 통해 구미대는 반도체전 자통신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부, 전기융합에너지과 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100여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교과형 및

단기 몰입형 융합과정을 운영하는 등 혁신적 교육과정을 진행해 지역 산업체 수요에 맞는 인력을 배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구미대는 원익QnC, ㈜씨엠티엑스, 자화전자㈜, 덕우전자㈜ 등 15개의 반도체 관련 참여기업과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이와 함께 원익QnC와 공동으로 반도체 퀴즈웨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단기 몰입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취업 연계형 자율 현장 운영 방식으로

추진한다. 참여 학생에게는 매 학기 부트캠프 특별장학금(등록금·생활비)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배장근 반도체 부트캠프 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미대는 반도체 설비 운전 및 유지 보수 분야에 특화된 핵심 인력 양성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라며 "우수한 교육역량을 기반으로 실무 중심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인력수급 전초기지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ub0104@hanmail.net

봉화정자문화생활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인기'

스탬프 투어·원데이 클래스 등 체험형 관광지의 대표로 '거듭'

봉화정자문화생활관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누정 휴(休) 공간 만들기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누정 휴(休) 공간만들기는 정자문화

생활관을 찾는 방문객들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참여·체험 프로그램으로 전시회 개최, 스탬프 투어, 원데이 클래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시회는 누구나 편하게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인 누정갤러리에서 매달 개최되고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누정 愛 공공' 스탬프 투어는 정자문화생활관 내 설치된 스탬프를 모으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의 방문객에게 인기몰이 중이다.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원데이 클래스는 지난달 20일 사전접수를 진행하는데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좋다.

정자문화생활관을 찾은 한 방문객은 "오랜만에 정자문화생활관을 방문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서 체험하기 좋았다"며 "다음엔 숙박시설인 솔향촌에 와서 산책도 하고 하루를 보내고 싶다"라고 말했다.

권유규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봉화정자문화생활관에 방문할지 고민하고 연구해 체험형 관광지의 대표로 거듭나겠다"라고 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어르신 바리스타 등장... '카페 윤슬' 문 활짝

예천군,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예천군은 8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신규 시장형 사업단 '카페 윤슬'을 개소했다. '카페 윤슬'은 예천시니어클럽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소규모 업종을 운영해 일자리와 추가 사업 수익을 창출해 내는 시장형 사업단으로 소풍(음식점), 나비세상, 단샘 농부네, 실버유통에 이어 5번째다.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참여자 12명이 3교대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판매 메뉴로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연유

라떼 등 커피류와 에이드, 스무디 등이 있다. 특히 고급 원두의 아메리카노를 2000원에 판매하며 이 외에도 간단한 한 끼 식사로 가능한 메뉴도 있고 행사나 모임에 적합한 디저트·음료 세트도 구성돼 있다. 또한 8000원 이상 주문 고객에게는 무료로 배달할 예정이다.

박태환 국장은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많이 생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카페 윤슬은 군청 뒤편(예천읍 무리실 1길 18, 103호)에 있으며 단체 주문 및 문의 사항은 전화(054-654-6098, 054-655-6099)로 하면 된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더블에이치플랜

DHP

종합이벤트 기획 · 연출 · 진행

대표 현병희

Mobile : 010-3517-1105

E-mail : hbh0912@naver.com

경북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덕양빌딩 7층

포항, 글로벌 이차전지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특화단지·특성화대학원 이어
기회발전특구 국책 사업에 지정
14조 기업 투자 적기 지원 속도
산업단지 핵심 인프라 확충 전력
이강덕 “정책 면밀히 추진할 것”



능성을 발견하고 에코프로를 유치했으며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등 이차전지 산업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 지자체 주도로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와 기업지원을 위한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포항의 이차전지 사업 방향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포항시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이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이차전지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특화단지 지정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원, 글로벌 대학, 기회발전특구로 이어지는 이차전지 국책 플랫폼을 지정받으면서 대한민국 이차전지 도시의 최선두에 나서고 있다.

치해 오는 2027년까지 14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다.

또한 포항은 양극재 원료부터 리사이클링까지 이차전지 소재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유일무이한 도시이다.

포항시는 특화단지 지정 이후 예정돼 있는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산단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력, 우수 등 산업단지 핵심 인프라를 위한 기업 애로와 현장 규제를 정부, 경북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해소해 산단 입주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전력공급 및 용수공급시설 국비 사업 확보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업 생산활동 기반을 지원하는 특화단지외 더불어 기업의 실질적인 지방 투자를 이끌어내는 기회발전특구는 재정지원과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도권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지역으로 이전 시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 과세가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미뤄지며 창업기업 또는 신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5년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등 최대 7년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방투자 촉진금 보조금 확대 및 펀드 조성 등 재정금융지원과 함께 특구 내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 양도세 특례, 자녀 교육 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 등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포항시는 배터리 아카데미,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원, 글로벌 대학, 교육특구 등 국책사업을 잇달아 유치해 고급인력에서 현장인력까지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 전초기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을 위한 이차전지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해 기술과 인력이 상호 교류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혁신 거점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이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전지보국 실현에 한층 가까워졌다”며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 산단을 조성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 이차전지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태 기자cyt4568@naver.com



마늘경매식집하장서 영천 햇마늘 첫 선

대서종 마늘 1kg 4100원에 낙찰
1일 최대 400t으로 사전예약제

영천시는 지난 1일 경북 최초로 운영하는 마늘경매식집하장에서 2024년산 햇마늘에 대한 첫 경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경매를 알리는 초매식 행사는 최기문 시장을 비롯한 김중욱 시의회 부의장, 이영우 시의원, 박성웅 농협중앙회 영천시지부장, 이구권 신녕농협장, 최진욱 (사)한국마늘가공협회 회장, 김상운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경북도지부장, 최상은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 등을 비롯해 5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북 최초로 운영되는 마늘경매식집하장은 지난 1일을 시작으로 오는 8월 5일까지 주 6일(일요일 휴무) 운영된다. 취급품목은 대서종 마늘만 취급하

고 하루 경매량 1일 최대 400t으로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농가당 1일 300방(20kg)까지로 물량이 제한돼 있다.

최근 5년간 영천마늘 유통구조는 관내 농협 계약매매를 통한 수매방식으로 대금 지급은 당초 매취에서 수탁으로 변경돼 농가에 1년 동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방식으로 3번 지급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경매식집하장이 개장되면서 수매계약 물량 이외의 경매물량은 경매 다음날 바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영천마늘 마늘 유통구조를 당초 수매 100%에서 수매 50%, 경매 50%로 전환을 목표로 경매식집하장을 추진했고 농협을 통한 수매계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가격안정제사업 계약물량으로 산지폐기 및 출하물량 조절에 따라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매를 통해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정식열 기자jy9220@hanmail.net

케이메디허브, 다중영상 융합 진단 치료기기 개발 ‘마이티’ 첫발

서울아산병원·광기술원과 협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안 논의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와 서울아산병원, 한국광기술원은 지난달 27일 서울아산병원 융합연구관에서 ‘다중영상 융합 진단 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 연구단(마이티 연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마이티(MIGHTY, Multi-Image research Group for Health, diagnostic and Therapy) 연구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영상 기반 진단 치료기기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주관기관), 케이메디허브, 한국광기술원이 발족했다.

출범식 현장에는 마이티 연구단 단장인 권순의 서울아산병원 교수와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 신인희 한국광기술원 센터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중 의료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구개발,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아산병원 서동우 교수와 박지은 교수는 각 소속병원의 클라우드 기반 연구 시스템 및 임상 관점에서의 다중 의료영상 활용 뇌종양 연구 경험을 소개했다.

또한 이은희 케이메디허브 부장과 신인희 한국광기술원 센터장은 다중영상 융합 진단기기 및 신경중재치료기 개발 전주기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업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마이티 연구단 출범식에서는 기업초

합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연구단은 기업초청 간담회를 통해 다중영상 융합 진단 치료기기 개발 기반을 활용한 의료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주기 상용화, 의료영상 기반 진단 치료기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기업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류했다.

케이메디허브는 보유했던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 R&D 지원 인프라와 역량을 활용해 기업이 개발하는 다중영상 융

합 진단 치료기기의 상용화·제품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양진영 이사장은 “다중영상 기반 진단 치료기기 개발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의 혁신을 이끌 마이티 연구단의 발족을 축하한다”고 전하며 “케이메디허브도 연구개발과 상용화 전 주기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iM뱅크 대구 동성로지점 저녁 7시까지 운영 영업시간연장 특화점포 ‘Time+뱅크’ 1호점... 오후 4~7시 금융상담

iM뱅크는 일상 속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해 영업시간연장 특화점포인 ‘Time+뱅크’ 점포를 운영하고 시행 1호점으로 대구 동성로지점(지점장 정용환)을 저녁 7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저녁 7시까지 운영되는 특화점포 1호점은 대구 중심에 위치한 동성로지점(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5)으로 지난달 21일부터 본격 연장 운영을 실시했다.

Time+뱅크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연장 시간인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는 금융상담업무를 중심으로 입·출금, 각종 채신고 등의 은행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단 일부 업무의 제한이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iM뱅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후 내점을 요한다.

시중은행 전환을 계기로 금융 접근

성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하는 iM뱅크는 다양한 형태의 점포를 통해 전국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자 한다.

“Time+뱅크”를 비롯해 찾아가는 이동점포, 편의점 제휴점포, 5일장 디지털점포, 시니어 특화점포 등 금융편의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기존 점포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점포 도입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황병우 은행장은 “Time+뱅크가 짐 체인도 도심 상권을 밝히는 작은 불빛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시중은행 전환과 함께 변화해 가는 금융환경 속에서 고객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일상 속 iM뱅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도의 일환인 Time+뱅크가 고객 편의를 제고하고 나아가 도심 경제 활성화에 보다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대구 군부대 이전 최적지는 칠곡!!

기부하고~ 혜택받고~ 고향살리고~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하는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담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칠곡군이 아닌 칠곡군을 응원하는 누구나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 기부시스템(PC/모바일) - [고향사랑e음](#)
•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대면접수(※신분증 지참)

기부혜택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물 제공

담례품
농특산물, 전통·가공식품, 지역상품권 등



기부 바로가기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문의 | 칠곡군 세무과 ☎ 054-979-6244

의성, 제안제도 운영평가 '우수상'



의성군은 지난 5일 경북도에서 주관한 '2023년도 제안제도 운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9년 연속 제안제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군부 우수를 수상한 의성군은 지난해 '제6회 군민행복 상상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개최했으며 공무원 제안동아리와 정책연구모임 상상초월단을 운영하며 양질의 제안 발굴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정성수기자power5151@naver.com

부향면 자율방범대, 도로 환경 정비



김천시 부향면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지난 5일 지역 내 주요 도로의 풀베기 작업을 했다.

이번 풀베기 작업 규모는 갈계에서 유촌삼거리에 이르는 6km가량으로 대원들은 도로변 풀베기와 잡초를 제거하고 풀베기 작업을 해 도로 환경을 정비했다.

문우동 대장은 "이번 작업이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부향면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기자ks5149@naver.com

경상투데이 손님

-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 ▲임활 경주시의회 부의장
- ▲최재필 의회운영위원장
-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
-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
-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
- ▲남미경 경주시의회 사무국장

경주 온동네봉사단, 폭염 속 거리 대청소 '구슬땀'

황성동 도심 일대 풀베기 실시

지난 5일 온동네봉사단 단원과 서라벌RC 회원, 20여명은 경주시 황성동 도심인 계림중학교 주변과 유림로 일원, 유림철로 굴다리 주변의 우거진 나뭇가지 베기와 인도바닥에 널려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풀베기 활동을 실시했다.

덥썩 37도, 체감온도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 단원들과 회원들은 더위를 먹지 않도록 안전장비를 하고 예초기, 송풍기, 가꾸리(갈퀴), 빗자루, 호미 등을 가지고 계림중학교 주변 동서남북 인도를 깨끗하게 정리한 후 유림로로 이동해 버스정류장 주변 등 동민들이 다니는 곳에 인도로 빠져나온 나뭇가지를 모조리 잘라내고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살기 좋은 살고 싶은 황성동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봉사했다.

지나가던 A학생은 "학교를 오가는



길에 나뭇가지가 인도 쪽으로 나와서 피해 다니느라고 힘이 들었는데 온동네봉사단과 서라벌RC 회원들이 깨끗하게 정리해줘서 참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의 말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원들에게 했다.

온동네봉사단은 매달 첫째주 금요일 경주시노인복지회관 설치지 봉사, 매달 둘째주 목요일 무료급식소 이웃

집 급식봉사로 시민들을 섬기고 있으며 매달 셋째주 토요일 환경정화활동의 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황성강변, 로타리온동네동산, 황성동 주거단지, 상가골목, 공영주차장, 용황지구 구획정리지역 미건축 내대지 등에 버려진 쓰레기를 깨끗하게 정리해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깨끗함의 행복을 선사하고 있다.

여경화 단장은 "우리 온동네봉사단은 그 이름에 걸맞게 황성동 온동네 구석구석을 깨끗이 해 지역주민들이 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함이 봉사단 창단 목적인 만큼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동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봉사 다하겠다"고 했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동산이엠에코, 봉화 이웃 위한 성금 '훈훈'

동산이엠에코는 8일 봉화군정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된 300만원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봉화군의 자원봉사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또한 동산이엠에코는 지난해 3월에도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하는 등 봉화군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정천의 이사는 "봉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봉사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라며 "봉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말했다. 정휘영기자jhy4430@hanmail.net



경주 새마을부녀회, 밀반찬 세트로 '情 나눔'



경주시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지난달 28일 읍·면·동별 80세대에 밀반찬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홀몸 어르신들과 조손가정, 차상위계층에게 과일, 햄통조림과 생선 통조림, 라면, 죽 등 150만원 상당의 밀

반찬세트를 준비했다. 정명숙 회장은 "경주시 새마을회에서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고맙다"며 "봉사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예천·우체국, 폐의약품회수 우편서비스 '힘'



예천군은 지난 4일 예천우체국과 '폐의약품회수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군은 이달부터 예천우체국 집배 인력을 통해 약국 등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서 폐의약품을 수

거해 지정된 장소로 배송하게 된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미사용 폐의약품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약국·보건소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으로 배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외영기자p04140@naver.com

동 정

도교육지도자 AIDT 역량강화 연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9일 오후 5시 10분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열리는 경북교육지도자 AIDT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한다.

기재부 예산실 방문·국비 지원 당부

권기항 안동시장은 9일 오후 1시 30분 오는 2025년 국비예산 지원을 건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해 협조를 당부한다.

가족분뇨 유기질비료 수출 선적식

최기문 영천시장은 9일 오전 10시 30분 ㈜무계 바이오에서 개최되는 가족분뇨 유기질비료 해외수출 선적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봉화-해운대구 자매결연 협약식

박한국 봉화군수는 9일 오전 11시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되는 봉화군-해운대구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과학관공원 리뉴얼 설계 착수보고회

최재훈 달성군수는 9일 오후 3시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과학관공원 리뉴얼 사업 설계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 세부 사항을 논의한다.

고령, 고혈압 자가관리 프로그램



고령군은 고혈압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오는 8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오후 2시~3시) 용소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에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혈압 환자 또는 그 가족을 소규모(10명~12명)로 구성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대상자들에게 사전·사후 설문지, 각종 혈액검사(혈압·혈당·콜레스테롤) 및 인바디 검사, 올바른 가정 혈압 측정법, 약물복용법, 합병증 관리, 운동방법,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8차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김일호기자hoyai1515@daum.net

2024 하반기 수강생 모집

경주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교육

운영기간

2024. 8.22(목) - 12.19(목)
매주 목 / 17주
오전반(10~12시), 오후반(19~21시)

수강료

신라문화원 회 원 120,000원
비회원 140,000원
농협 351-1136-1107-13 (신라문화원)

강의장소

오전반 : 서약문화공간 (경주시 서약3길 14)
오후반 : 신라문화원 교육관
(경주시 금성로 254, 축협 2층)

문의접수

신라문화원 054-777-1950 www.silla.or.kr

주관 신라문화원

후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주)봉성원자력본부



No.	날짜	주제	강사
1	8월 22일(목)	신라의 공권(왕성)	김호상 이사장 · 역사고고학연구자 · (재)황신문화재연구원 원장 · (재)진흥문화재연구원 이사장
2	8월 29일(목)	신라의 강(문천)	
3	9월 05일(목)	신라의 산(남산)	
4	9월 12일(목)	신라의 무덤(왕릉)	신용철 관장 · 왕실시립박물관 관장 · 울산박물관 운영위원 · 통도사 분당사 문화재위원
5	9월 19일(목)	조탑경과 불탑	
6	9월 26일(목)	비보사탑실과 불탑	차용정 실장 · 불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전국유물전시관 연구소 소장 · 불성기초학술연구 TF
7	10월 10일(목)	밀교와 불탑	
8	10월 17일(목)	계단(戒壇)의 구조와 상징	박광연 교수 · 동국대학교 WISE 국사학과 교수 ·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원 소장 ·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
9	10월 24일(목)	불국사 1	
10	10월 31일(목)	불국사 2	김규호 교수 · 전, 경주대학교 대학원 원장 · 문화관광산업과 교수
11	11월 07일(목)	석굴암 1	
12	11월 14일(목)	석굴암 2	전환복사와 <왕복시지상중석탑공동사리함>
13	11월 21일(목)	백률사와 <이차돈사교비>	
14	11월 28일(목)	무장사와 <무장사야미다불조상사적비>	송복사와 <송복사비>
15	12월 05일(목)	송복사와 <송복사비>	
16	12월 12일(목)	송복사와 <송복사비>	특별강연: <왕과 통일>
17	12월 19일(목)	특별강연: <왕과 통일>	

*상기 일정에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천축산농협에서는 지난 1일 경제사업장 2층 회의실에서 한우대학 1기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는 김진수 영천축산농협조합장 및 임·직원과 정통면 박성자 씨를 비롯한 28명의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이 거행됐다.

영천축산농협 한우대학 1기생들은 지난 4월 11일에 입학해 11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한우전문 강사로부터 한우 개량, 한우유전체분석, 한우사양관리 등 정해진 교육일정에 따라 전문 축산 교육이 진행됐다.

김진수 조합장은 "11주 동안 수업에 성실히 임해주신 졸업생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라며 "고품질 한우 생산이라는 우리 조합원의 공동목표라는 인식을 함께 해 수료하신 분들이 영천 한우 성장에 크게 기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천축산농협은 앞으로도 해마다 한우대학 수료생을 배출해 분야별 축산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식열 기자jy92920@hanmail.net

상주보건소, 재난의료대응 훈련



상주보건소에서는 지난 5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경북응급의료지원센터 주관으로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상주소방서 구급대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규모 재난 상황 등으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 시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현장에 출동 후 수행해야 하는 역할 숙지, 업무분장의 체계화,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운영 등 효율적인 재난의료대응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론수업과 도상훈련으로 실시됐다.

특히 도상훈련에서는 재난사고발생을 가정해 신속대응반 현장긴급출동,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른 환자의 중증도별 분류 처치 이송 등 현장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임창환 기자changwan12@naver.com

봉화, 제안제도 운영 성과 '눈에 띄네'

'11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봉화군이 지난 5일 경북도에서 주관한 '2023년 시·군 제안제도 운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지난 2014년부터 11년 연속 제안제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제안제도는 국민 참여정치 및 행정혁신을 실현하고자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제도로 경북도는 제안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마다 제안제도 운영 평가를 실시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국민 제안공모전 '함께 꿈꾸는 봉화'를 비롯한 공무원 제

안공모전 '함께 그리는 봉화', 군정현안 시책 공모전 '싱크탱크(Think-tank) 톡! 톡!' 등을 개최해 총 336건의 다양한 제안을 접수하고 군정에 반영했다.

특히 '폐기물 배출 논스톱 제도'의 시행은 배출자가 매립장에서 바로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읍·면사무소를 거쳐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현국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제안 하나하나가 '봉화군 발전'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이라 여기고 소중히 짚을 퇴워 키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정휘영 기자 jhy4430@hanmail.net



영주여고, 사제동행 문화탐방 '서울 나들이'

영주여자고등학교는 지난 6일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사제동행 문화탐방 및 오감 체험'을 주제로 서울에 위치한 인사동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그라운드 서울'을 다녀왔다. 그라운드 서울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리얼 뱅크시' 전시를 관람했다.

기말고사가 끝난 주말에 즐거운 마음으로 교사와 학생, 선배와 후배가 멘토와 멘티가 돼 서로의 마음을 이해

하고 교과서에서만 봐 왔던 작품을 직접 보고 느끼는 문화예술 체험으로 진행했다.

전시 관람을 끝내고 인사동 거리에서 길거리 행위예술가와 1학년 이은서·박효주 학생은 악수를 나누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은 인사동 갤러리에서 다양한 작가의 전시를 관람하며 자유롭게 문화 공간을 체험했다. 윤여성 기자bk01410@naver.com



문경 신동현씨, 시각 장애인에 선품기 후원



신동현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문경지회 회원은 지난 5일 문경시 시각장애인+지원센터에 선품기 55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선품기는 여류 무더위에 취약한 시각장애인 가구에게 제공해 시원한 여름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동현 회원은 "저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같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더불어 살자는 생각으로 기부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민난주 센터장은 "귀한 선품기를 후

원하신 뜻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신동현 회원은 시각장애 경증이었으나 3년 전부터 눈 건강이 나빠져 현재는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시각장애 중증이 됐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한 공교실에 참여하는 등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상주 낙동농협 농주모,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지난 4일 상주시 낙동면 낙동농협 농가주부모임(농주모)에서는 바쁜 영농철을 맞이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샤인머스켓 봉지치우기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농촌 일손 돕기에는 낙동농협 조합장과 직원, 농협 상주시지부 임직원, 농가주부모임 회장 및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봉사활동을 했다.

농촌일손 돕기에 참여한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

낀다"라고 했다.

도움을 받은 농가는 "농촌 고령화로 인력을 구하기 힘든 요즘 시기에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와 같은 분들"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김영국 면장은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일경 속에서도 땀 흘려 봉사해 주신 농가주부모임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위 이웃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지역 분위기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창환 기자changwan12@naver.com

적십자사 예천지구, 봉사활동 훈훈



김성자 대한적십자사 예천군지구협의회 회장과 봉사회 회원 30여명은 지난 4일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예천사랑마을(원장 김기연)을 찾아 봉사 활동을 했다.

봉사회 회원들은 대한적십자사에서 5t 세탁 차량을 지원받아 세탁봉사를 하고 후원 물품과 직접 만든 떡볶이를 예천사랑마을 입주민에게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예천군지구협의회는 평소에도 김장봉사, 반찬나눔봉사, 세탁봉사, 목욕봉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에 앞장서며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칠곡농기센터, 농업인대학 졸업식



칠곡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인대학 농업기반기술(전기, 용접) 과정을 지난 4월 12일 시작해 총 21회 교육했고 이달 3일 졸업식을 진행했다.

이번 농업기반기술과정은 농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전기 및 용접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현장실용교육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했다.

특히 전기교육에선 회로 및 시퀀스 실습을, 용접에선 필렛용접 및 파이프 용접 실습 등을 진행해 졸업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김재욱 군수는 졸업식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 향상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에 적극 지원해 지역인재 양성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Advertisement for 'ICT Hub City Gyeong-san' featuring a large graphic of a city and people working, with text: 'MY UNIVERSE GYEONGSAN', '대학도시를 넘어 창업도시로!', 'ICT허브도시 경산'.

클라리넷의 우아한 음색·화려한 기교... 대구시향, 체임버 시리즈

17일 오후 7시 30분 무료 공연
대구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현악 4중주에 클라리넷 더해
모차르트·도흐나니 작품 연주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실내악곡을 대구시향교향악단(이하 대구시향) 단원들의 차별화된 연주로 만나는 체임버 시리즈 그 두 번째 무대가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무료로 펼쳐진다.

‘고전적이고, 낭만적으로’라는 부제를 단 이날 공연에서는 바이올린 콰유정(차석) 바이올린 김나영 △비올라 최민정(수석) △첼로 배규희 클라리넷 김차용(수석)이 출연해 고전주의 작곡가 모차르트와 후기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20세기 작곡가 도흐나니의 작품을 연주한다.

첫 곡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이다. 두 대의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까지 현악 4중주에 클라리넷이 더해져 5중주를 이룬다. 지난 1789년 빈 궁정관현악단의 클라리넷 연주자이자 모차르트와 깊은 우정을 나눈 안톤 슈타들러를 위해 만든 곡이다.



바이올린 콰유정



바이올린 김나영



비올라 최민정



첼로 배규희



클라리넷 김차용

클라리넷은 1700년경 살무모라는 악기를 모체로 고안돼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아름다운 음색으로 18세기 중후반부터 독일, 프랑스 등에서 자주 활용되기 시작했고 모차르트에 의해 그 진가와 매력이 발휘됐다.

이 곡을 쓸 무렵 모차르트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 자녀의 죽음 등을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불행은 작품에 드러내지 않고 밝은 분위기의 장조로 ‘클라리넷 5중주’를 완성했다.

모차르트의 균형 잡힌 선율 구조와 단정한 형식 안에서 클라리넷이 펼치는 우아한 음색과 화려한 기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내악적 치밀함도 엿볼 수 있다. 총 4악장 구성이고 특히 2악장에서는 클라리넷과 제1바이올린의 아름다운 2중주가 펼쳐지며 진한 감동과 여운을 안겨준다.

휴식 후에는 도흐나니의 ‘현악 4중주 제3번’이 연주된다. 후기 낭만 시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던 20세기 헝가리 음악계에 큰 영향을 끼친 도흐나

니는 리스트, 버르토크, 코다이 등과 함께 헝가리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꼽힌다. 그가 이 곡을 작곡한 1926년 유럽 음악계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과 급격히 달라져 있었다. 그래서인지 ‘현악 4중주 제3번’은 총 3개의 악장에 걸쳐 감정적 강렬함과 때때로 긴박감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1악장은 완전한 주제가 제시되기 전 짧은 선율의 도입부로 시작된다. 초조하고 불안한 긴장감이 특징이며 전쟁 같은 행진곡풍으로 웅장하게 펼쳐진다.

2악장은 조용하고 사색적인 첫 번째 변주가 1악장의 긴장을 상쇄시킨 후 회오리처럼 휘몰아치는 두 번째 변주 그리고 주제가 힘이 있게 재구성된 마지막 변주로 이어진다. 마지막 악장은 날카롭지만 밝고 경쾌하게 마무리된다. 현대에 만들어진 곡이지만 불협화음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일부 형식에서 드뷔시, 라벨, 하이든을 연상케 한다.

대구시향 ‘실내악의 발견 I - 체임버 시리즈② : 고전적이고, 낭만적으로’는 전석 무료이며 1인 최대 4매까지 대구

콘서트하우스 누리집이나 전화(053-250-1475)로 예약할 수 있다.

초등학생(8세) 이상의 사전 예약자에 한해 관람할 수 있으며 만석 시에는 입장이 제한된다. 예약 취소는 공연 전 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한편 다음 체임버 시리즈는 오는 8월 14일, 9월 4일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각각 개최되며 ‘실내악의 발견 II’는 10월과 11월에 총 4회 있을 예정이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대구공항에서 즐기는 신나는 문화예술체험 ‘이목집중’

문예진흥원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매달 26일 참여형 공연·전시 등
한국화 부채 만들기 ‘다국적 인기’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에서 운영하는 ‘2024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이하 예술로 대구) 선진기관인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에서 파견 예술인들과 함께 매달 ‘이목데이(26day)’를 운영한다.

‘이목데이(26day)’는 매월 26일을 중심으로 공항을 찾는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 전시, 참여형 이벤트 등을 펼치는 공항공사의 대표 문화 프로그램이다.

대구공항은 ‘예술로 대구’ 파견 예술인(△서찬영(음악) △이보은(음악) △전시현(국악) △김승연(미술) △이은영(음악))과 함께 올해 ‘이목데이’를 계획해 연중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5월 24일 이목데이에는 첼리스트 서찬영과 해금연주자 전시현, 싱어송라이터 이은영, 작곡가 이보은이 ‘시



작’이라는 주제로 국제선 터미널에서 공연을 펼쳤다.

공연에는 타 기관(대구교통공사)의 파견 예술인인 하피스트 이희주, 국악인 황세희가 특별 출연으로 함께해 국내외 이용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크로스오버 공연을 펼쳤다.

5월 공연에 이어 지난달 26일부터는 ‘여운’을 주제로 파견 예술인 김승연 작가의 한국화 전시가 펼쳐지고 있으며

오는 25일까지 국제선 터미널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전시 개최 당일 ‘한국화 부채 만들기’ 체험에 다양한 국적의 이용객들이 참여했다.

이용객 중 한 명은 “여행을 떠나기 전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할 때가 있는데 뜻밖의 예술 체험으로 뜻깊은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대구공항은 기관에 파견된 전문예술인 5명과 함께 여행객을 비롯해 공항을 찾는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공연·전시·참여형 이벤트를 ‘예술로 대구’ 사업이 종료되는 오는 10월까지 개최해 대구공항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성열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은 “공항은 여행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곳으로 기대와 설렘, 추억이 진하게 남는 공간”이라며 “공항을 방문하는 모든 이용객이 예술로 오감을 적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대구공항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하는 ‘예술로 대구’ 사업의 파견 예술인들과 함께 새로운 공항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예술협업 활동 프로젝트는 대구예술인지원센터 누리집(artistcenter.or.kr)과 온라인 플랫폼 SNS(인스타그램 @daegu_asc)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고비사막도 주파한 세계 6대 마라톤 완주자 러닝전도사 안정은 작가, 점촌도서관 온다

27일 낮 2시 작가 초청 특강

경북도교육청 점촌도서관(문경시 호서로 133)은 지역주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및 지식욕구 충족을 위한 인문학 사업인 점촌 아카데미의 첫 번째 강연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에 ‘러닝전도사 안정은 작가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

안 강사는 작가이자 러닝전도사로서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인재상과 2020년 신진여성문화인상을 수상했고 세계 6대 마라톤 대한민국 최연소 완주, 몽골 고비사막 250km 마라톤을 논스톱으로 완주했다. 또한 MBC ‘아무나 출근’, KBS2 ‘영상앨범 산’, 한국직업방송 ‘취미로 먹고산다 시즌4’ 등 다수의 방송에도 출연했으며 저서로는 ‘제주를 달리는 64가지 방법’, ‘나는 오늘 모르야 하는 일을 하는 중이야’ 등이 있다.

안정은 강사는 이번 강연에서 ‘나만의 인생길을 만드는 방법’을 주제로 달리기와 자신의 삶, 인생 마라톤을 포기하지 않는 법과 지금 바로 달리기를 시



작하는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참가 신청은 9일 오전 10시부터 점촌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참가자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기타 강연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점촌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54-550-3607)로 문의하면 된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고령 지산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칼럼

디지털 사회의 그늘, 불법 스팸 등으로 안전할 자유(下)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534호에 이어= 이처럼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 스팸은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스팸이 발송되는 구조부터 살펴보자.

대량문자 발송 과정을 보면 3개의 이동통신사와 직접 연결망을 구축한 9개의 '문자 중계사'가 있고 그 아래 소매상 격인 1175개의 '문자재판매사'가 있다. 문자재판매사들이 문자 발송을 원하는 병원, 슈퍼마켓 등과 직접 계약을 맺고 문자 발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KISA는 불법 스팸 급증 원인 중 하나로 일부 문자재판매사의 해킹을 지목했다. 즉 일부 문자 재판매사의 문자발송 시스템의 보안이 허술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들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는 스팸 문자 메시지 발송을 방지하고자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 자격인증제'와 '발신번호 블랙리스트 기반 재발송 제한제'를 도입했다.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 자격인증제란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합법적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스팸전송 방지규정을 위반한 재판매사들은 KISA, 방통위, 이통사, 중계사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송차단, 계약해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발신번호 블랙리스트 기반 재발송 제한제는 여러 차례 중복 신고된 스팸문자를 KISA가 분석해 발신번호를 문자중계사에 통보하고 발송을 차단하는 것이다.

법 정부적으로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방통위, 금융위,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범정부적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강력

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팸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아무리 보안을 강화해도 끊임없이 새로운 피싱 기법이 등장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스팸 대책은 주로 이용자의 주의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용자들은 사실상 스팸 피해에 방치돼 불법 스팸 등으로 개인정보와 재산권을 안전하게 지킬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

한국에서 불법 스팸은 스팸 스트레스, 스팸 공해, 스팸 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치안 수준으로 안전한 밤거리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는 어둠의 거리로 바뀌고 있다.

정부는 사법당국의 역량을 총결집해 불법 스팸 전송자를 수사·처벌해야 할 것이며 제도적으로도 이통사, 문자중계사, 문자재판매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문자재판매사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진입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모니터링과 제재의 수위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뉴스1

독자기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김민
포항남부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방장



올 여름은 이른 폭염과 함께 그 기간도 길어질 전망이다.

폭염에 계곡이나 바닷가 등으로 많은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놀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수난사고 구조건수는 총 5만2045건으로 해마다 여름철(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더위가 일찍 찾아오기 시작한 지난 2020년 이후 6월부터 수난사고 구조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9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수난사고 원인은 △건물이나 도로 등의 시설물 침수(3644건) △물놀이 익수(2816건) △수상표류(1835건) △차량 추락·침수(1682건) 순으로 물놀이 사고 외에 다양한 원인으로 수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수영 미숙,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후 수영 등이 원인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수심이 깊은 곳과 유속이 빠른 곳은 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사고 연령대도 50대 이상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가 가장 많지만 10~40대에서도 두루 발생하고 있고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주의해야 한다.

물놀이 관련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시기가 도래한 만큼 행복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 위험 또는 급지구역을 출입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안전한 물놀이 안전 수칙을 살펴보면 우선 물놀이 전 준비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준비운동 없이 찬물에 들어가면 근육과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몸 전체를 스트레칭해 몸을 풀어야 한다. 입수할 때는 심장과 가장 먼 다리부터 물을 적셔가며 물 온도에 적응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식사 후 바로 물놀이는 삼가야 한다. 식사 후 소화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수영하게 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위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 식사를 한 후에는 휴식을 통해 충분한 소화를 시킨 후 물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이어 음주 후에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물놀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안 취했으니까, 조금밖에 안 마셨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하다.

장시간 강렬한 햇빛에 노출이 됐을 때 '일사병'

과 '일사병' 위험이 있다. 따라서 어지러움, 두통 등 증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그늘진 곳에서 반드시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및 젖은 수건으로 얼굴과 몸을 닦아 열을 내려줘야 한다.

아이들의 경우 장시간 물놀이는 저체온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물에서 나온 뒤 젖은 옷을 벗기고 몸에 물기를 제거한 후 타월로 감싸 체온을 막아야 한다.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하거나 방심하면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항상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특히 어린 아이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더라도 혼자 위험을 해결할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자와 동반해 물놀이를 즐겨야 한다.

숙달된 사람이 아니면 직접 수영으로 인명 구조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최악의 경우 물에 빠진 사람에게 잡혀 동반 익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가장 먼저 주위에 상황을 알리고 119신고 후 반드시 자신의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구조 기구를 이용해 던지거나 손을 뻗어 구조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여름철 물놀이는 가족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활동이다.

그렇기에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준비하는 습관을 길러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사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공방 지도부 “도 넘었다” 옐로카드

국민의힘 7·28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과 여부와 관련한 문자메시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로 떠올랐다.

4·10 총선을 지휘했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취지의 김 여사 문자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현직 인론인이 지난 4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과 여부와 관련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언급하며 불거졌다. 김 여사가 "저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리 송구하다",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등의 메시지를 한 후보에게 보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문자를 읽은 한 후보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아 김 여사는 모욕을 느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알고 격노했으며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등 '윤-한 갈등'의 표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 후보는 답을 안 한 이유에 대해 "사적인 방식으로 공격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사과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문자가 '사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과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한 후보는 또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라고 했다. 전대 흐름을 바꾸기 위한 누군가의 의도적 플레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자 논란이 과열되자 여당 지도부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총들이 계속된다면 지도부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경원·윤상현·원희룡 당대표 후보 측은 김 여사의 사과 의사를 무시한 한동훈 후보측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했다. 한 후보가 당시 문자에 호응해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한 후보 측은 당시 '사과 불가' 여론이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내에 팽배했다고 반박했다.

전당대회에서 워십 논란이 과열되자 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모습이다. 특히 이 논란이 과열될 경우 지도부 차원에서 개입해 대응하겠단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전당대회가 과도한 비난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언행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통해 즉시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자 원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김 여사가 왜, 어떤 맥락에서 문자를 보냈는지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한 후보가 당시 문자를 받고 공식 채널로 용산 측에 진의를 파악하려 했는지, 안했다면 왜 안했는지 등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다.

일단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필요가 있다. 다만 미래 비전 경쟁은 온데간데없고 '배신자' 공방만 벌이다 난데없이 '문자' 공방까지 벌이는 여당 전대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당 대표 후보자들은 과거보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두고서 경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참패한 집권 여당이 보여줄 게 이런 다름뿐인지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진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100032 http://www.gyeongsangtoday.com	
발행·편집인 이승협		편집국장 박성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체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청경부 <구내>1008	F A X (054)748-3363	
구독·광고·제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 양정로 25(동천동)역양빌딩 8층 구독료월정 1000원/부당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칭찬이 씨앗 되어 마음에 예쁜 꽃을 피웁니다

경상투데이 칭찬 캠페인

경상투데이배 전국아마추어 GOLF대회



대회장 김 효 철

2024/7월 29일(월)
장소/경주신라CC



주최/주관/후원

- 주최 | 경상투데이
- 주관 | KTPGF 한국티칭프로 골프연맹
- 후원 |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경주시, 경주시의회, 경상투데이운영위원회

참가접수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아마추어골퍼 160명 (40팀, 입금순)
- 경기방법: 신페리오방식 (조편성은 랜덤)
- 접수방법: KTPGF 한국티칭프로골프연맹
- 문의: M. 010-3501-6073
- 접수기간: 6월 17일(월)부터 접수마감시까지 선착순 마감
- 참가비: 1인 22만원(그린피·카트비 포함, 저녁식사제공, 캐디피, 그늘집은 참가자 본인 부담)

시상내역

메달리스트	남·여 각 트로피 및 상품		
우승(신페리오)	남·여 각 트로피 및 상품		
준우승	남·여 각 트로피 및 상품		
롱기스트상	남·여 각 트로피 및 상품		
니어리스트상	남·여 각 트로피 및 상품		
홀인원상	지정홀 최초 해당자		
포토제닉상	상품	다버디상	상품
베스트드레서상	상품	다보기상	상품
최고령자상	상품	다파상	상품
최연소자상	상품	양파상	상품
행운상	상품(현장추첨)		

※ 참가자 전원에게 푸짐한 경품과 행운권 추첨이 준비되었습니다.



입금계좌: 농협 302-0716-2732-61(예금주 백승만, KTPGF)
※ 신청 마감 후 참가 취소시 참가비 환불 불가
※ 우천시에도 대회 정상 진행